

“한미정상 통화 유출, 알권리 성립 안돼”

靑,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내용 유출 ‘알권리·공익제보’ 규정 나경원 주장 일축
외교부와 합동 감찰 통해 주미 韓대사관 근무 외교관이 강 의원에 통화내용 전달 확인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알권리와 공익제보로 규정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돼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을 보안조사 한 것과 관련해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의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로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뒤 귀국길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뉴시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권양숙 여사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부시 전 미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盧·부시 때 한미동맹 발전... 나와 트럼프도 그 정신 계승”

문 대통령, 조지 W.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남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감사... 한미동맹 공고 상징”
부시 “아버지는 한국 매우 사랑해... 나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조지 W. 부시 전(前)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부시(전) 대통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결정을 내렸던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 6자회담 등은 한미 동맹을 더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부시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뒤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 정신을 이어 한미 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도 한미 동맹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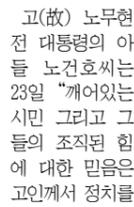
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에게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해준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한미 동맹의 파트너였던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과 여전히 노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위트가 될 것”이라며 “게다가 (부시) 대통령이 이 손수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

를 유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니 아마 그보다 더 따뜻한 위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부시 전 대통령은 “(초상화가) 노 전 대통령과 닮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기회를 빌어 (부시) 대통령님께서 최근 부모님과 장모님을 연이어 여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로라 여사님께도 위로의 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또 “아버지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은 분이였다”고 전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나는 정말 훌륭한 부모님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버지는 한국을 매우 사랑하셨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전·현직 한미 정상들의 면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과

정인용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기념 사진을 촬영할 때 문 대통령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퇴임 후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 류 회장으로부터 (부시) 대통령의 근황을 많이 듣고 있다”며 “화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통령 속에 있던 랩브란트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웃으면서 “아직 랩브란트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화가가 됐다. 내 삶이 변했다.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전직 미국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 2017년 7월 3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두번째다. /뉴시스

“깨어있는 시민, 아버지가 정치 포기 않도록 한 신조”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 추도식 인사말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23일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이지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항상 부시 대통령의 지적 능력과 전략적 판단에 대해 감탄하시곤 하셨다”며 “짚어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전략적 사안의 핵심을 놓치는 법이 없다며 경탄하셨다”고 했다. 또 “아버님과 부시 대통령 두 분께서는 재임 기간 중 참 많은 일을 함께 일귀내셨다”며 “두 분이 계시는 동안 한미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우정과 추모의 뜻을 표해 주신 데 유족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과 재임 시절이 겹치는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손수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족 측에 선물했다. /뉴시스



평화당 전북도당, 당원 연수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무주 나불 리조트에서 핵심당원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제공)

이춘석 의원, 오늘 황등지구 배수개선 기공식 참석

24일 황등면 건덕정에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이 열린다. 이 사업은 황등호 복원을 위한 전초사업으로 호남 지방의 발전 지로서 황등호의 의미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배수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은 물론 수변공간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조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예결위 간사 때부터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이번 기공식까지 5년 동안 동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돼 감개무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황등호 복원의 기반을 마련해 마곡사와 함께 익산의 자긍심도 높이고 관광산업도 살리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으로 기대된다. 2014년 예결위 간사 때부터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기 시작해 이번 기공식까지 5년 동안 동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돼 감개무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황등 배수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황등호 복원의 기반을 마련해 마곡사와 함께 익산의 자긍심도 높이고 관광산업도 살리는 역사문화자원으로 키워낼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